

[로스쿨 합격기]

## 막막함 속에서도 진심과 열정으로 꽃피우길

김 해 주

- 부산 성모여자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년 입학예정



### I. 진입동기

저의 학부 전공은 경영학과였고, 전공 수업을 들으며 인사관리·노사관계 분야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우던 중,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약 8개월의 수험기간 끝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공인노무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인사관리 분야에 관심이 많았지만, 7개월 동안 수험공부를 하다 보니 노동법, 행정법 등의 법학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법학 공부를 하며 주요 사건의 판례를 읽어봄으로써 법적 근거를 깨닫는 일은 법학을 공부해본 적 없던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더불어 노동법을 더 깊이 있고 폭넓게 해석,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학의 기초가 되는 헌법, 민법, 형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결심한 것은 4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기 때문에 토익공부를 틈틈이 하기는 했지만 집중해서 하지 못했고, 로스쿨 준비를 제대로 시작한 것은 3월부터입니다.

### II. LEET

#### 1. 처음 접해본 LEET

4학년에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도서관에서 처음 풀었던 리트 기출문제는 충격이었습니다. 언어이해는 30분 이상 시간이 부족했고, 추리논증도 시간을 초과해가며

35문제를 다 풀었지만 11개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나는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메가로스쿨 조성우 강사의 추리논증 기초입문을 인강으로 수강했고, 5월에 다시 추리논증 기출문제를 풀어봤지만 역시 35개 중 11개를 맞췄습니다. 겨울방학에 처음 풀었을 때는 ‘내가 아직 리트 유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합리화라도 했는데, 30강짜리 인강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1개 밖에 맞추지 못한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리트에 대한 공포심과 어차피 공부해도 안될 것 같은 불안함에 6월 말까지 리트 공부는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점, 토익 등의 다른 요소는 노력하면 결과는 가시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4학년 1학기에는 학점 관리와 토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2. LEET 공부법

6월 말이 되어 부랴부랴 합격수기를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리트공부를 7~8개월은 했다는 글이어서 나는 늦은건가 생각이 들어 불안했고, 7월 한 달은 우울한 기분으로 얼마 남지 않은 리트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4학년 1학기에 리트 공부를 했다면 법학 학점 9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을 수강해 전 과목에서 A+를 만들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 학기지만 학년수석을 한 경험은, 내가 전문자격증이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 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제가 리트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는 ‘평균이라도 하자.’였습니다. 리트 점수가 압도적이어서 원하는 로스쿨에 합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리트 때문에 가고 싶은 로스쿨을 지원 불가로 만들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리트 공부에 임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추리논증 11개라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맞은 이유는 시판 관리 실패였습니다. 35문제를 시간 안에 다 풀려고 하다 보니 정작 푼 문제들의 정답률이 낮아졌습니다. 더불어 내가 어떤 영역이 약한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실하게 다 푼 뒤에 시간이 남으면 약한 부분을 풀자 라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추리논증의 점수를 올려야 로스쿨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6월 말부터 조성우 강사의 기본강의(이론과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강좌)를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합격수기를 찾아본 결과 기본강의를 가장 충실하게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강의를 들으며 수리추리 문제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해설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논리게임을 포함해 다른 문제유형은 문제풀이 방법을 확실

하게 익혀 두었습니다. 기본강의를 인강으로 끝낸 후에는 조성우 선생님의 파이널 강좌를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기본강의와 파이널 강좌 모두 도움이 많이 되었고, 각 문제에서 어떤 논리 과정을 거쳐 답에 도달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인강으로 수강했기 때문에 Q&A 게시판으로 질문을 해야 했는데, 시기가 7월인지라 답이 상당히 느렸던 것은 불편했습니다.

기본강의를 다 들은 후부터 8월의 시험 당일까지 조성우 강사의 파이널 강의를 수강하면서 역대 기출문제를 3번 정도 반복해서 외워질 때까지 풀었습니다. 추리 논증은 결국 유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학습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16, 2015 기출의 경우 11문제를 맞췄지만 2017 리트에서 약 25개를 맞춰서 제 나름대로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은 높았지만, 시간이 30분 이상 부족했습니다. 추리논증보다 맞추는 문제는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걱정이 없었지만, 점점 갈수록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 훨씬 힘든 과목은 언어이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읽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정답률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과학지문은 시간 남으면 풀자 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학원 강의가 유용하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메가로스쿨 leet 해설서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나온 leet 해설서를 구입해서 틀린 문제는 왜 틀린건지 분석했습니다. 또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메가로스쿨 차선우 선생님의 1타3패 특강도 수강했습니다.

### III. 토익(TOEIC)

로스쿨을 준비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은 리트도, 자기소개서도 아닌 토익이었습니다. 원래 영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스쿨 입시에서 기본으로 맞춰야 한다는 900점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입시에서 영어는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학점은 이미 결정된 학기가 많고, 리트가 적성시험이라 시험 당일의 컨디션과 타고난 사람들이 잘 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 그중 하나가 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학년이 되어서 시기에 따라 학점관리, 리트, 자기소개서 작성과 토익을 병행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학점이 리트를 커버할만큼 높지 않았고, 리트를 공부해서 실력을 올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성적이 오른다고 알려진 토익의 경우 무조건 잘 받아줘야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학기 개강을 하고 영단기 린한 선생님의 문법 강의와 경선식 선생님의 단어 책을 보고 시험을 쳤지만 5월에 본 시험에서 700점대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성적을 받은 후 토익에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주어진 시간에 맞게 푸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YBM 공식실전서, 해커스 1000제2 등의 문제집을 사서 타이머를 재며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5월 이후에 6월 말부터는 다시 리트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결국에 저는 7번째 토익, 9월 25일 토익까지 쳐서 마지막 시험에서 90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성격 자체가 궁지에 몰려야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지만, 9월 초 토익도 800점 초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토익 성적이 낮다고 내가 노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 받으면 어찌지’라는 생각에 꽤 초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영어점수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둘 것을 권합니다. 이는 영어성적 자체가 중요해사라기보다는 영어 성적을 미리 만들어둬야 다른 공부(리트, 학점, 자기소개서 등)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교 재학생이면 더욱 4학년이 되는 겨울방학 이전에 토익점수를 확보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IV. 자기소개서

리트가 끝나자마자 메가로스쿨 차선우 선생님의 3시간짜리 자기소개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특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적었을 때 될 수 있는 장래희망, 이 시기에 당장 해야 할 사항 등 알짜배기 정보 위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특강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동안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특강을 들은 후 자기소개서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토익 점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토익에 집중했고, 자기소개서는 제출이 2~3주 정도 남은 때에 부랴부랴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겠다.”는 의지와, 내가 그러한 역량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들을 최대한 검손하게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1) 내가 로스쿨에 가야 하는 이유와 (2) 그 로스쿨이 내가 지원하는 해당 로스쿨이어야 하는 이유를 모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내가 왜 로스쿨에 가고자 하는지, 가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상세하게 쓰지만 그 학교가 왜 내가 지원하는 로스쿨이어야 하는지는 자세히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조언 받았고, 빠지지 않고 쓰려고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쓴 이후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까운 지인들, 교수님들께 자기소개서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던 문장과 표현도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받았을 때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친한 교수님께서 아예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문단을 여러 개 지적해주셨습니다. 시간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쓴 글을 다시 고쳐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고치고 다시 읽어보니 노력을 들인 만큼 훨씬 나은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토익 때문에 리트가 끝난 후 자기소개서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9월 전에는 토익 점수를 완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리트가 끝나자마자 자기소개서를 빨리 시작하여 완성하고, 최대한 많은 분께 보여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리트 시험 전에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틈틈이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 고민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리트 점수가 잘 나오셨더라도 결국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성과 열정을 잘 녹여 들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 V. 면접

면접의 경우 알고 보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트도 시험인 만큼 공부하면 점수가 오르는 하지만 말 그대로 ‘적성’ 시험인데 반해, 면접은 공부한 만큼 다 선보이고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 메가로스쿨 차선우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강의가 세부적인 주제를 하나하나 가르친다면, 차선우 선생님의 강의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답할 수 있게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앙대학교 면접에서 주어진 문제 자체는 경영학에서 배우는 위험회피성향 관련 문제가 나왔지만, 교수님의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차선우 선생님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대부분 학교가 블라인드 면접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성 질문은 반드시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가령, 졸업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라는 질문 등의 수험생의 신분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VI. 기타 참고사항

- (1) '이 학교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라는 말이 들리더라도 한 해마다 평가하는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근거도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점수와 스펙에 대해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면 2학기에 열리는 공동입시설명회와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입시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입시가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그 학교 교수님께 직접 궁금한 바를 물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2) 로스쿨 입시는 1년 내내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리트가 끝나면 쉬엄쉬엄하게 될 줄 알았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문에 2학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안날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재학생이시라면 4학년이 되기 전 1,2학기 학점 배분 계획을 세우실 때, 리트 때문에 1학기가 부담된다고 하시더라도 2학기에 너무 많은 학점을 듣기보다 적당히 학기별로 나눠서 들을 것을 권장합니다.

## VII. 글을 마치며

입시를 준비하며 주변을 둘러보면 리트 점수가 작년보다 더 올랐음에도, 하향지원했음에도 불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뭘 해야 붙는 건가 생각이 들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 중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입시를 준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된 학점, 남들에게는 쉬우나 나에게만 어려운 것 같은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리트, 언어이해 과학지문, 비싼 학원비 등 모든 것이 버겁다는 것을 실감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뛰어나 보이고, 이미 다 준비해두고 갖춰져 있어 보이는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내 이것 끝나면 저것이 시작되는 생활에 지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본인이 부족해서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느끼는 좌절감과 불안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딱딱한, 알찬 준비 기간을 거치시면 누구나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수험생분들이 입시에 성공하셔서 훌륭하고 가슴 따뜻한 법조인에 한 걸음 다가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